

현장속으로

1만원의 가치. 1만원이 어린이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고 입고 공부하는데 충분한 돈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어렵지는 얘기다. 그러나 태국 국경지역에서 난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1만원의 생계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군부독재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 태국 국경지역으로 탈출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그리 두텁지 않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경우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지원의 길도 개척되지 않은 곳이다.

태국의 국경지역 미얀마 난민들의 고단한 삶 속으로 영봉 스님이 다녀왔다. 본지 678호 봉축특집 기획 '토굴에서 만난 스님'에 소개했던 영봉 스님은 올 초파일 토굴에 들어온 '시주금' 400여 만 원을 그곳 헛벗은 어린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달했다.

영봉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에게 미얀마 난민촌을 다녀온 소감을 전하며 그들을 돕기 위한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새생명학교 어린이들의 식사 모습 지켜보고 있는 영봉 스님

“1만원이면 한 어린이 한 달 생활 충분”

영봉 스님 특별기고
미얀마 난민촌을 다녀와서



국을 탈출한 미얀마 난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와 마을들은 태국 국경지역에 길게 분포되어 있다.

나는 매수 인근 난민촌과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한 노포(Noa Poe) 캠프까지 두루 찾아가 현장을 살폈다. 매수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우 틴양 의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을 만나 현지에 대한 상황을 들었고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한국의 조계종 승려인 나는 정치나 이념적인 목적이 전혀 없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위한 방편이란 것을 잘 알았으므로 그들도 거리낌 없이 나를 도와고 받았다. 때문에 나는 비교적 자유롭게 난민들의 캠프를 찾아다닐 수 있었다. 국경지역이고 난민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탓에 검문이 심했다.

아이들을 보면서 민주 독립 운동과 독재정권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새생명학교는 목장처럼 나무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고 울타리 밖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다. 학교가 차지한 땅도 태국인 소유라서 월세를 내야한다. 마당가에는 낡고 초라한 대나무통 시소와 미끄럼틀이 있고 학교 건물은 우리나라 농촌의 빈집보다 허술했다. 그래도 아이들의 눈망울은 가을하늘 같고 목소리는 싱싱하고 투명했다. 매일 아침 합장을 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아이들의 한 끼 식사는 한국 돈으로 50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 공기 쯤 되어 보이는 밥에 국물 한 국자를 끼여주는 것이 전부였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한 끼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전체 음식량에 비해 아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었다. 식사뿐이겠는가. 책과 공책은 물론 학용품도 절대 부족이었다. “책과 학용품보다 현실적으로 급한 것은 공기입니다”는 학교장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야채를 볶아 주기 위한 공기통이 학용품보다 절실하니 말이다. 맨손으로 밥을 먹고 맨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매년 한 두 차례 구충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그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도 아이와 교육이 '미래' 별레나 습기를 피해 누각 형식

지난 초파일은 몹시 힘들었다.

본의 아니게 '현대불교'에 나의 토굴생활이 공개되며 여기저기서 질책의 말을 들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질타는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힘이 됐고 그 힘은 나를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작은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히말라야를 다니며 들었던 미얀마 난민들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묻었던 추억처럼 떠올리게 된 것이다. 토굴에서 초파일을 보내고 나니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큼의 정재(淨財)가 손에 쥐어졌다.

30만 명 난민의 비참한 삶

7월 12일 한국을 떠나 미얀마 난민촌을 향했다. 태국 방콕까지 항공기를 타고 가서 방콕에서 버스로 8시간을 달려 국경지역인 매수(Measoi)에 도착했다. 매수는 30여 만 명이 이르는 미얀마 난민이 살고 있는 태국의 국경지역 가운데 한 도시다. 영화 '람보4'의 시작 부분에 엄청난 폭격이 가해지는 도시가 바로 매수이다. 군부독재를 피해 죽음을 각오하고 고

목장 같은 학교...한끼 식사에 50원

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곳은 매수에 있는 '새생명 학교(New blood school)'였다. 전교생이 168명인데 모두 학교에서 생활했다. 그 가운데 58명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이었다. 영양실조를 간신히 면할 수 있는 정도의 학교 급식에 의존하며 변변한 이불도 신발도 없이 살아내는 아이들. 인근 숲에서 야채를 채취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어린



자비의 손길 모아 그들에게 희망을
매수를 다녀와서 몇몇 불자들에게 그곳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함께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해 후원회자를 만들었다. 부모에게 그곳 얘기를 전해들은 한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겠다”며 돈을 모아 보내왔다. 그 아이가 내게 또 다른 힘을 주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이 기고문을 쓰게 됐고 후원금 모금도 공개적으로 하고자 한다. 자비의 손길을 모아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불사에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23-703846 예금주 임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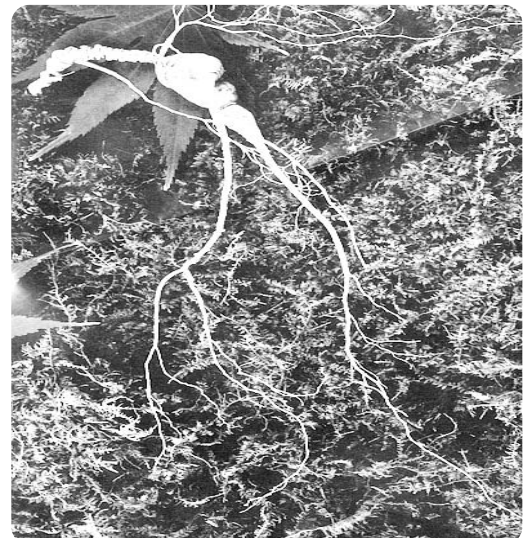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정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안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하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행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당(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 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 (분식 51160-150)

2008 한국불교박람회

화승당 묘각스님 달마展



화승당 묘각목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 불화 단청 만봉스님 사사
- 시경 박익준 선생 사사
- 대한민국 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 동남아시아 7개국 순회전시
- 불우 어린이 가정 돕기 및 독거노인 돕기 20여회 전시
- BBS불교방송 초대전시
- MBC 방송 초대전시

2008년 불교박람회를 기념하여 묘각스님의 달마 전시회를 봉행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 2008년 9월 5일 - 8일 (불교박람회 기간)

장소 : 일산 킨텍스 (교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031)810-8114

주최 : 해동불교인제중

후원 : 한국불교통합중앙총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28-4번지 2층 화승당 포교원 ☎ 061)743-1227 / 010-5894-0900

